

'폐슬레이트 집중 정비의 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임실군, 4~10월 한시적 사업 운영... 철거 비용 전액 지원

임실군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 시행 △사유지 포함 대상 확대 △자부담 없는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격 시행되며, 노후·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집중 정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현재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 자재다.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파손·방치될 경우 석면 비산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환경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26년을 '폐슬레이트 집중 정비의 해'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군은 사업종료 이후 별도의 연장계약이 없는 만큼 이번 사업이 자부담없이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공공용지에 무단 투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임실군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사업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공용지는 물론 사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까지 포함한다.

수거대상은 2026년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마을이장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하다.

다만, 슬레이트의 담장, 콘크리트 바닥 등 부대시설 철거비용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며, 과거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받은 동일지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과 함께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심 민 군수는 "2026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많은 군민이 가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내년부터 동 단위까지 확대

남원시가 2023년부터 4년간 읍·면 단위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2026년 말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도시 지역인 '동(洞) 단위' 까지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태양광(전기)과 지열(난방) 설비를 통한 설치한 가구의 경우, 연간 에너지 비용을 최대 80% 이상 절감하며 고품질 시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총 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해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본격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 공모 대응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 40억 원 규모(450개소 이상)의 사업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획득을 목표로 산아 국비 지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과 지열·태양열 설비가 복합 설치되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및 난방비가 크게 줄어들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시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시민 모두가 에너지 복지를 누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산불조심주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임실군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산불조심주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중심 홍보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캠페인은 주요 시가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골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불법소각 근절 안내 △인식선지 화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조심 어깨띠 착용 가두홍보 등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 12% 확대 운영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12%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캐시백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15%까지 상향 운영한 바 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2월 한 달간 15%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면서 군민들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골목상권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12%로 인상해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15% 캐시백 정책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은 판매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충전은 '지역상품권 dsk' 앱 또는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열려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임실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임실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 천소영)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전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사업별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현장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업의 파급효과와 지역 여건 부합 여부, 경영 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공고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

극 안내해 왔다. 이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청년 농업인 육성, 농산물 가공 등 총 4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916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향후 사업 추진 요령과 보조금 집행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남원시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령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대상은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또는 사백신 2회 접종으로, 사백신의 경우 전체 백신비의 70%가 지원됨에 따라 시민들은 회당

53,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의사 예진 결과 및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생백신 접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거 생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사백신으로는 가능하다.

접종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실(063-620-793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 설명회 가져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진흥원 1층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외 바이오, 발효, 농생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2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절차,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잠재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조건, 선정 절차,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소개됐으며,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됐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진흥원 1층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외 바이오, 발효, 농생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2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절차,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잠재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시설 구성과 입주 조건, 선정 절차,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소개됐으며,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됐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현 광통부(廣通部)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